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꿈꾸다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센터장

CPTED의 등장: 범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을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2015년 1월 21일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1980년대부터 범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무질서한 행위와 환경이 그대로 방치 되면 주민들이 그 장소를 피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잠재적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욕구를 증대시켜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된다고 한다.* 이 이론을 포함하여 환경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에서 범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 개념이 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CPTED)이다.

* 정진성·강용길·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교, 2009, pp.73~74.

CPTED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는 20년이 넘었으며, 경찰청과 CPTED학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및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약 4년 전 ‘소금길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시작되었고, 지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사업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비상벨이 고장 나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사업대상지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업대상지가 몇 개뿐이라면 다행이지만,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CPTED 사업의 확산

CPTED 사업은 1차적으로는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꿈으로써, 2차적으로는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통 CCTV·비상벨·벽화나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시행된다.

좁은 골목길에는 CCTV 하나 보이지 않고 조명은 어둡침침하다.
과거에는 마포나루를 거점으로 하는 소금창고가 많아 인심이 후한 동네로 유명하였지만
최근 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 비율이 급격히 줄고 세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어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많아졌다.
여성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밤이면 상점도 거의 문을 닫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2.10.17.

서울시에서는 범죄심리학자, CPTED 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인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0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포구 염리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소금길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운동코스를 개발하여 ‘소금길’로 바꾸었고, 노란 대문과 비상벨로 대표되는 ‘소금지킴이집’을 배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금나루’라는 주민공동공간을 만들어 카페, 마을문고, 택배수령서비스, 비상약 등 편의물품 판매와 커뮤니티아트 교육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그리고 24시간 초소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금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박경래 외(2013)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후 응답자의 범죄 두려움은 약 9.1% 감소하였고, 동네에 대한 애착감도 13.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250여 개의 CPTED 사업의 효과가 전부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소금길 사업이 진행된 직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로 인해, 그리고 사업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CPTED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250여 개의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상지도 있다.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는 CPTED 전문가가 많지 않아 CPTED 계획안이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CPTED 계획안이 작성된다거나 졸속으로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 벽화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지역도 생겨나고 있으며,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소 기반의 범죄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 어떤 형태의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물리적인 시설물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로 포장 때문에 지워진 바닥 도색

자료: 손동필 외,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9.



수목 관리가 되지 않아 가려진 표지판

* 박경래 외,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p.254.



쓰레기와 전단지가 방치된 비상벨과 지도



쓰레기가 버려지고 방치된 대피소

자료: 손동필 외, 『법질서 실현운동 통합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9.

성공적인 CPTED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

지금까지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CPTED 사업의 법·제도적 지원 문제, 범죄 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이에 따른 낙인효과, 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방안, 갈수록 노후화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 CPTED 사업효과의 실증분석 등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그간 진행하였던 CPTED 사업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CPTED 사업 시행’을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분한 사업 계획기간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CPTED 사업도 보통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봄이나 초여름에 용역이 발주되고 겨울에는 시공이 잘 안 되니 가을에는 용역을 마쳐야 한다. 즉 몇 개월 안에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니 계획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충실한 계획안이 도출되기 어렵다.

계획기간이 짧아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다르다. 지난달 이화동 벽화마을에서 계단 그림을 훼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민 몇 명이 입건되었다. 지역에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는 상가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고 프라미버시를 침해당하는 주민도 존재한다. 물론 재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사람들 모두 지역의 주민들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최종 의견은 결국 합의를 통해 이루

어저야 한다. 이화동 벽화마을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되어 CPTED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나 CPTED 사업이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계획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물론 전체 대상지 안에 소규모 사업대상지 여러 곳이 포함되어 각 대상지의 사업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충실한 계획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다분야전문가들의 협업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일본 등에서는 CPTED 관련 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도시·건축·경찰행정·사회·심리·컴퓨터 분야 등이 종합된 다학제적 학문으로 자리 잡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이론 개발과 실무 적용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CPTED 사업에서는 범죄학 전문가 혹은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서로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만나 보면, 한쪽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하거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에도 서로 진단과 해법이 달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훈련, 다양한 기관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기관을 존중하며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CPTED라는 학문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사람 중 하나인 레이 제프리(Ray Jeffrey)는 형법, 사회학, 심리학, 사법, 범죄학, 교정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충분한 계획기간에 이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p.6.

**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Florida, CRC Press. 2013, p.60.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향한 걸음

위에서 제안한 기간과 주체는 지금까지 CPTED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즉 지속가능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CPTED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PTED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다. CPTED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한다면 우리가 꾸는 꿈은 조금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진성·강용길·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교, 2009, pp.73~74.
- 2 박경래 외,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p.254.
- 3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p.6.
- 4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Florida, CRC Press. 2013, p.60.